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보도자료

2024년 11월 5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담당부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연구조사부장 이병규(063-530-9430) / 담당자 조한빛(063-530-9433)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 이하 기념재단)은 11월 5일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개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국가유산청의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가 함께 주최하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그 속에 담긴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조선에서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기하였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총 185건의 문건이다. 동학농민군이 작성한 문서, 정부 보고서, 개인 일기와 문집 등 기록 주체에 따라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및 가치관을 알 수 있다. 2023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민주,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기억의 저장소로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기념재단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총 40여 점의 기록물들을 실물로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구성은 4부에 걸쳐 기획되었으며, 1부 ‘변화와 개혁의 기록 - 평등한 세상을 꿈꾸다’, 2부 ‘협치와 상생의 기록 - 집강소를 세우다’, 3부 ‘자주와 항전의 기록 - 외세의 침략에 맞서다’, 4부 ‘정의와 인권의 기록 -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다’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박물관, 기념관 상설 전시와는 다르게 인간 존중과 평등, 민주, 정의, 인권, 자주, 평화 등 기록물에 내재된 소중한 핵심 가치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시의 개막식은 11월 5일(화) 오후 3시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앞 마당에서 축하공연, 개막 퍼포먼스 등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특별전시와 연계하여 ‘필묵으로 써 내려간 혁명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표현한 서예작품 58점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층 원형공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11월 5일 개막식 당일에는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천연염색으로 물들인 혁명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천연염색 스카프 만들기, 나만의 기록 남기기 등의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일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국립아시아전당과 함께 ‘ACC 이동형 무대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어린이 가족문화축제’도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별전시를 통해 세계에 새겨진 동학농민혁명의 기록을 마음 속 깊이 되새기고, 전 인류와 함께 할 소중한 가치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중지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063-530-9430), 연구조사부 조한빛(☎ 063-530-94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붙임. 포스터 및 리플릿



Highlights of Korea's Civil Revolution
Imprinted in World History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in Commemoration of the Inscription of the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o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2024.11.5. 화 - 2025.4.13.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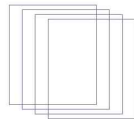
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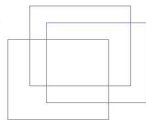
Special Exhibition in Commemoration of the Inscription of the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o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세계에 새겨진

Highlights of Korea's Civil Revolution
Imprinted in World History

혁명의 기록



개막식

2024.11.5. ^화 | 15:00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층 일대

특별전시

2024.11.5. ^화-2025.4.13. ^일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서예 작품전 '필묵으로 써 내려간 혁명의 기록' 동시 개막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층 원형공간

특별전을 열며

2023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하였습니다. 이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전 인류가 공유하며 지켜내야 할 소중한 기록유산이 된 점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모두 185건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억의 저장소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지향하였던 인간 존중과 평등, 정의와 인권, 자주와 평화 등은 오늘날까지도 커다란 의미를 지닌, 살아있는 가치들입니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4부에 걸친 구성으로 1부 변화와 개혁의 기록, 2부 협치와 상생의 기록, 3부 자주와 항전의 기록, 4부 정의와 인권의 기록입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을 마음에 되새기고, 전 인류와 함께 할 소중한 가치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신순철